

원명선원, 중앙연수원 황인선원 개원

11월 4~11일 7박8일 집중단식수행

30여년간 재가자 참선 수행 지도로 큰 성과를 얻은 제주 원명선원(선원장 대호 스님·사진)이 용인에 중앙연수원인 황인선원을 개원한다.

원명선원은 11월 9일 오전 10시 조계종 원로의원 고우 스님(금봉사 조실)을 증명법사로 개원법회를 열고 수도권 참선 포교에 나선다. 원명선원은 개원기념으로 11월 4~11일 7박8일간 간화선 삼매체행 집중단식수행을 실시한다.

대호 스님은 "몸에 꼬달리면 마음을 다스릴 수 없다. 신체적

자극을 통해 의욕을 높이고 단식을 뛰어넘는 수행방편이 된다"면서, "집중적인 참선과 단식수행으로 사교의 틀을 열고 무한자재한 절대근원의 자아를 회복하자"고 말했다.

문의 (031)671-7707



김성우 기자

가을을 여는 진중음악회

태풍부대 군장병·가족 열기 뜨거워

산사음악회로 전국 사찰이 풍성한 가을을 노래하는 가운데 병영에서 산사음악회가 열려 화제다.

10월 11일 저녁 6시 30분 동두천시 육군 28사단(사단장 박종선 소장) 신병교육대 대강당에는 군장병 600여명, 군인가족 및 군인가족 150여명, 출연자 90여명의 열기로 가득했다. 호국광명사(김대성 주지) 주관으로 열린 이색 음악회는 불교적인 색채가 가미되어있으면서도 종교적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수준 높고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객을 매료시켰다.

28사단 홍보자료 방영을 시작으로 군악대, 금강정사·봉은사 혼성합창단, '메주와 웰리스트' 도원녀, 성악가 유현주,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 마에블 풍물패 공연 등으로 진행된 음악회는 군장병들의 댄스경연대회에 따른 휴가 포상으로 참여의 기회도 마련돼 호응을 얻었다.

가족과 함께 온 이소은 씨는 "불교방송에서 산사음악회를 다룬받아서 보다가 이렇게 직접 보게 되니 감격스럽다"며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자주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통일을 염원하는 '그리운 금강산'과 '한 오백년' 등을 연주한 '메주와 웰리스트' 도원녀 보살은 "된



10월 11일 28사단 신교대 강당에 군장병과 일반인 800명이 모여 '가을을 여는 진중음악회'를 만끽했다.

장공장이 28사단 구역 내에 있어 군대 공연은 많이 했지만, 오늘처럼 청중과의 교감이 이뤄진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불자 장병의 사기진작과 일반 장병들의 불교에 대한 우호적인 마음을 끌어내기 위해 진중 산사 음악회를 준비한 김대성(성원) 사단법사의 포교 의지는 대단했다. 올해 7월 호국광명사로 전입해 100일 기도를 시작한 김 법사는 "오늘이 100일 기도 회향날인데 이렇게 무사히 행사가 마무리 된 것은 부처님의 위신력"이라며 "포교를 위해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한 끝에 장병들

에게 재미있는 불교를 보여주고 싶어 음악회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법사는 "법당이 18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28사단 법회 인원을 1000명에서 4000명으로 늘려 군에서의 불교 인연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며, "사단장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전국지역 신행단체인 향지회, 구룡사, 사암연합회를 비롯한 주변의 많은 분들의 도움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박종선 28사단장, 오세창 동두천 시장 등 각계 인사들이 자리를 빛냈다.

이상연 기자

은해사 창건 1199돌 개산대재 봉행



은해사 창건 1199돌 개산대재가 10월 12일 봉행됐다. 은해사 주지 법타스님, 정희수 국회의원, 김태욱 영천시의회위원장, 김영석 영천시장 등 10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는 개산조인 해탈 국사위역 대조사대제사(사신)를 시작으로 현공법요식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순법전대구사사장

故박정희·육영수 대통령부부 영정 이운법회



육영수(우)와 박정희(좌) 부부 영정 이운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태고종 중앙총회 부의장 원봉 스님과 김재철 육천군의회 의원, 인철호 검찰청 영동지청 행정자문위원장 등 300여명이 동참했다. 해철 총창사사장

지구촌공생회, 라오스 씬본·화계초교 완공



불교계 국제개발구호단체 지구촌공생회(대표이사 월주)는 10월 9일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씬본 화계초등학교 완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완공식에는 월주 스님, 진만 스님(화계사 재무국장), 비엔티엔시 교육청 관계자를 비롯한 사부대중 40여명이 참석했다. 후원 (02)465-9386 노덕현 기자

국민대화합 국토수호대장정 회향



'국민대화합 국토수호대장정 순례단'은 10월 10일 부산역 광장에서 한 달 동안의 여정을 회향했다. 대장정에 참가한 마조 스님(평화누리불교연대 상임대표), 지훈 스님, 무영 스님 등은 불상·단군상·십자가를 등에 지고 9월 11일 서울 파고다공원을 출발했다. 해철 총창사사장

파옥 사야도 집중수행 지도

수행공동체 '제따와나' 11월 3~30일 집중수련회

남방불교 수행의 종주국 미얀마에서도 최고의 수행승으로 손꼽히는 파옥 아친나 스님(Pa Auk Achinna Sayadaw·사진)이 국내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달간의 집중수행을 지도한다.

마하시 계통에서 사마타(정·心)를 그리 중요시 하지 않는 것과 달리, 깊은 사마타 수행 없이 위빠사나(마음챙김·觀)를 제대로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단언하는 파옥 스님은 아나빠나사미(호흡관)를 중심으로 실참수행과 법문, 문답을 통해 수행의 정수를 전한다.

'숨 붓다의 호흡 명상 수련회'라고 이름 붙인 이 수련회는 스님과 정신과 의사, 상담심리사 등이 주축이 돼 만든 수행공동체 '제따와나'가 1년여 간 준비한 법회.

11월 3~30일 한 달간 경기도 남양주시 축령산 자연휴양림 내 오덕훈련원에서 열리는 이 수련회는 한 주일을 단위로 모두 4차례에 걸쳐 나눠 진행된다. 파옥 스님과 그 제자인 우에와파 스님이 매주 화·토요일 좌선과 경행을 지도하고, 법문과 문답을 통해 수행을 점검한다.

파옥 스님은 또 11월 13일 오후 2~4시 대원불교대학, 21일 오후 7시30분~9시 불광사, 22일 오후 3~5시 마음공부전선 인터넷방송 '유나'센터, 23일 오후 2~4시 상도선

원 등의 일정으로 특별법문도 할 예정이다.

일묵 스님은 "파옥 큰 스님의 지도로 부처님의 호흡명상법을 체계적으로 수행해 삶의 기쁨을 누리보자"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4월 출범한 '제따와나(기원정사의 팔리어)'는 전문 지식과 불교수행을 접목해 사회문제 해결에 나선 지식인 위주의 수행공동체다. 운영위원은 조계종 중앙승가대 교수 미산 스님, 일묵 스님(서울대 수학과 박사과정), 위빠사나 붓다선원 대표 김열권 법사, 전현수신경정신과의원 전현수 원장 등 13명. 이들은 2002년 불교와정신치료연구회라는 이름으로 출발해 수행 경험을 현대 과학에 상충되지 않는 보편적 언어로 만드는 실험을 거친 뒤 지난해 '제따와나'로 이름을 바꿔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현재 회원은 수행자, 대학교수, 정신과 의사, 심리치료사 등 60여 명에 이른다. 이들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자살, 우울증, 정신분열증 등 사회문제에 대한 불교적 처방을 제시할 계획이다. (070)8267-0108.



김성우 기자

철장 안의 가족애와孝

제3회 전국교도소 효편지 공모 당선작 선정

육천 대성사(주지 해철)가 주관한 제3회 전국교도소 수행자 효편지 및 수필·가족편지 공모전 당선작이 선정됐다.

대상 수상작은 시 부문에 청주교도소 이 모씨의 <늙은 어머니>가, 수필부문에 순천교도소 최 모씨의 <그리운 어머니>가 각각 선정됐다. 최우수상에는 충주교도소 조 모씨 <그리운 어머니>와 광주교도소 김 모씨의 <부처님이 들려주는 효 이야기> 등 2편이 선정됐다. 우수상 2편은 홍성교도소 송 모씨의 <외면하지 마세요>, 청주여자교도소 박 모씨의 <사랑하는 아빠 엄마> 등이 선정됐다.

신설된 그림부문에 10여 편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임 모씨의 <향상 그림>과 생각하는 엄마께>와 이 모씨의 <공양의 마음으로> 등 2편이 우수상에 선정됐다.

대상사는 전국 51개 교도(구치)소 수행자를 대상으로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작품을 공모해 지난 10월 해철 스님, 보덕 스님(건불사 주지), 혜전 스님(석문사 주지)과 충남·북 지역언론 문화부 담당 기자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가운데 30여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12월 20일 각 교도소에서 진행된다. 수상작은 연말 당선작 모음집 <길, 누군가와 함께 3>으로 발간된다.

노덕현 기자

제5회 불교소장학자 연구·번역 지원 사업

사단법인 불교학연구지원사업회(이사장 법상)가 주관하는 '제5회 불교소장학자 연구·번역 지원사업'에 공민식 박사(동국대 불교학과)와 정천구 박사(부산대 한문학과)가 선정됐다.

심사위원회는 "공민식 박사의 <분별론>이 아비달마 교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준 것은 기대한다"고 평했다. 정천구 박사가 번역할 <원형석서>는 일본 최고(最古)의 승려 전기집으로 일본사 연구의 중요문헌으로 평가됐다.

선정자는 각 100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별도의 출판지원비도 보조받는다. 수여식은 10월 27일 오후 2시 강남포교원에서 열린다. (02)539-2631 조종섭 기자

불기 2552년
2008 해인사

비로자나불 무생계(보살계) 수계대법회

www.haeinsa.or.kr

비로자나불이 설하고 문수보살이 전해 온 법신계를 보살계로 한단계 진전시킨 비로자나불 무생계. 오직 해인사에서만 설하는 국내 유일의 보살계로 오늘날 모든 불자들이 수지해야 할 신행규범입니다. 특히 2008년 비로자나불 무생계 수계 대법회는 법전 중정예해께서 직접 주관하시어 봉행되는 바, 꼭 동참하시어 큰 공덕을 짓고 마침내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 법회명칭 2008 비로자나불 무생계 수계 대법회
- 일시 불기 2552년 (2008년) 10월 25일 토요일 (음 9월 27일) 오전 9시~오후 5시
- 장소 해인사 대적광전 앞 탐마당

- 전계대좌상 도림 법전 대종사(대한불교조계종 총정예해)
- 갈마아사리 연담 종진 대율사(해인총림 율주)
- 교수아사리 지엄 경성 율사(중앙승가대 교수)
- 존중사 통찰 사할 주지스님

일시 : 2008년 10월 25일 토요일(음9월27일) 오전 9시~오후 5시

▲ 국내 최고의 쌍둥이 목조 비로자나불
장소 : 해인사 대적광전 앞 탐마당

- ◆ 동참금 ① 무생계 수계 동참금 3만원
- ② 영가천도 동참금 1만원 1만원
- ◆ 문의 및 접수처 1 총합접수실 055) 934-3105~6, 팩스 : 055)934-3107
- ◆ 온라인 접수 1 농협 843174-51-013620 (예금주 : 해인사)
- ◆ 계절 직성 관개로 10월 20일까지 단차는 사전접수를 부탁드립니다.
- 주요행사내용 (수계식, 달마도 시연 퍼포먼스)